

# 병아리 소동

— 이 이야기는 실제임을 밝혀둔다 —

서 광 원

구룡농원

인간은 생명의 고귀함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말은 생명자체에 대한 강조의 뜻도 있겠지만 생명체에 대한 숭고성을 강조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얼마전 휴가차 시골고향을 내려갔을 때의 일이다.

하루를 흠뻑 뿜혀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현대문명이 부산물처럼 만들어내는 야박함, 속임수 등에 다소 묵묵한 표정들이다.

그새 제한된 공간에 익숙해진 내가 되어 넓게만 펼쳐지는 입체적 풍경감상에 젖어 있는 나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 들려왔다.

“도시인, 그리고 약아빠진 사람들” 일거라고 동네사람들 모두가 일어난 일에 대한 전모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오토바이를 타고온 3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상자를 가리키며 “이것은 병아리인데, 한 2천마리쯤 된다”고 했다.

이곳이 병아리 사육하기에 적당하다고 판정을 내려 기업적으로 양계장을 실시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3명은 한결같이 장황한 말솜씨로 연설을 해가며 시골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었다.

1인당 2천수를 사육케 할 예정인데 3개월마다 사육된 닭을 가져가게 된다고 했다. 1개월 월급으로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육자를 물색하려왔는데 오늘 가져온 것이 견본이자 증거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서 신청자를 모집했다. 순간 생각해보니 사료제공에 계사까지 임시로 지어준다고 하니 힘 좋은 동네 청년들이 군침이 넘어갈 수 밖에 -너도 나도 여러명이 신청을 했다. 그중 제일 먼저 등록한 한 청년에게 가져온 물건을 인도해 주었다.

서로가 먼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다음에 다시 또 가져온다는 위안의 말에 모였던 동네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 이 3사람은 사육할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했는데 내용인즉,

뚜껑을 열어 보지 마라, 세균이 침입하면 모든 병아리가 죽는다. 그리고 3일동안 먹이를 주지도 말것, 그리고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올테니 그때 임시 계사를 지어준다고 일러주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다 치자, 그중 한명이 이 청년에게 시설비중 일부금액인 10만원을 충당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돈은 닭 출하시 갚는다는 조건으로 - 월급에만 신경을 쓴 이 청년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없는 돈을 꾸어다가 주어 문제가 시작 됐다.

다음날 9시가 되어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한 청년이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5상자중 윗 상자엔 200마리정도 뿐이고 나머지 상자(맨아래)는 20마리정도 밖에 없더라는 것 순간 이 청년의 얼굴에는 사기-! 사기다! 라는 표정이 돌았다.

그러나 때는 늦어 버렸다.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젠장, 지금 그놈들 수배중입니다” 아차 싶었다. 그렇다고 병아리를 죽일 수도 없어 마음착한 청년은 길러야 된다는 도덕관념에 때아닌 계사를 지어 병아리를 넣었다. 아마 이 청년의 마음은(?) 그러나 더 마음 아프게 만든 것은,

다음날 일어나 먹이를 주려고 가보니 이웃집 황씨네 개가 80마리만 남기고 다 물어 죽였다는 것이다.

기상천외한 생명체를 미끼로 벌인 사기극 상황을 믿기도, 잊기도 어렵게 나는 다시 그들이 숨어다니고 있을 도시로 돌아왔다. ■